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석가원의 주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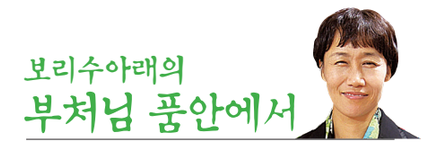


석가원의 주존으로 천고뇌은여래와 동체로 보고, 천고뇌음여래는 일체 번뇌를 끊어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고, 석가여래로 본다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설법하시어 중생을 제도하는 그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붉은 옷을 입은 것은 붉은색으로 자비심을 나타내고 중생제도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불자를 들고 있는 것은 번뇌를 털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석가여래의 무외자재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으며, 허공장보살의 연화 위의 보주는 석가여래의 광대한 지덕과 복덕을 의미하며, 무능성명왕과, 비는 석존이 보리수 아래서 성도할 때 방해하는 마왕을 항복시켜 석존의 분신 역할을 하였으며, 분노신으로서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⑪ 뇌병변장애 김영관씨

교통사고로 바뀐 삶, 108배로 극복



아름다운 청년이란 별명을 가진 김영관 씨.

장애불자에게 있어 참된 수행이란 무엇인가 물을 때가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아침마다 광명진언을 외우는 것, 불교 언론에서 법문을 듣거나 기사를 찾아보는 것, 일상에서 오계를 잘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행이라고 말을 해주곤 한다. 때로 그 말은 공허한 말이 될 수 있고 장애에 따라 실질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면도 많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찾아 수행 정진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으로 아름다운 청년이란 별명을 가진 김영관 씨는 새벽과 직장 근무를 마친 후 108배를 한다. 군생활 중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해 온 108배 수행이다.

어릴 적부터 계절 알레르기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학교도 자주 결석하곤 했던 영관 씨는 작은고모 따라 망월사에 처음 갔었다. 어린 영관 씨에게 망월사는 웅장하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편안하고 좋았다고 한다. 특히 절밥과 스님께서 주시는 다과도 너무 달고 맛있었는데 그것이 바탕이 되고 고등학교 때 본 요리 프로그램이 동기부여가 돼서 요리사라는 꿈을 키웠다. 그리고 그는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도 호텔조리학과에 진학했다. 공부를 핑계로 군입대까지 놀기도 했으며 군대 훈련병 시절에는 교회에 가면 초코파이를 더 준다는 동기들 말에 교회에도 갔었다는 추억담을 말해주기도 했다.

영관 씨는 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왔다가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인이 되었다. 힘겹고 방황했던 그 시절 영관 씨를 지켜준 것은 108배였다. 처음에는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손으로 땅 짚기가 어려워 수없이 꼬꾸라졌지만, 서서히 몸이 유연해지고 절하는 횟수가 늘어갔다. 꾸준히 108배를 하는 아들을 지켜보던 영관 씨 어머니의 권유로 사경 기도를 함께 시작해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법화경 사경에도 전념했다. 그러면서 천안 구룡사 스님 등 여러 스님들과도 연이 닿아 수행에 도움을 받으며 절과 사경기도를 계속하였다. 한편으로 서울로 지하철을 혼자서 타고 다니며 침 치료를 하는 등 재활치료에도 집중했다.

사회 재활을 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던 영관 씨는 승가대에 재학 중이던 범종 스님과 보리수아래에 나오게 되었다. 1박 2일의 낙산사 템플스테이 참여를 시작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영관 씨는 모임에 나오면 혹시라도 다른 회원들에게 실수나 실례가 되는 행동을 했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교통사고로 뇌를 다치고 난 이후부터 낯선 곳에 가면 불안과 초조함이 심해지고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거친 언어와 행동들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기도 하여 그것으로 하여 사회생활에 힘든 경험이 많던 영관 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영관 씨는 자신의 걱정과는 달리 낮은 톤의 친절한 목소리로 회원들을 대하며 먼저 필요한 것들은 먼저 살펴서 회원들이 아름다운 청년으로 별명을 부르게 되었다.

2017년 보리수아래 미얀마와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이 출간되고 책 전달을 겸한 성지순례 길에 동참하였었다. 태어나 해외여행이 처음이기에 긴장도 많이 했던 미얀마 성지순례를 다녀와 이런 말을 했다.

"왜 이렇게 조급하게 살고 있었는지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면 실수도 줄고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부처님의 나라, 그리고 가피에 대해서도 새롭게 느꼈습니다. 어느덧 기도는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히 하는 것이 되었고 오히려 못하는 날은 왠지 허전해하는 나를 보았습니다"

2018년에 대만불교문화순례에서 불광산사와 불타기념관의 대만 사람들 앞에서 했던 보리수아래 작은 음악회 참여는 영관 씨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베트남과 장애시인들과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에 자신의 시가 실리고 2020년에는 첫 개인시집 〈시에는 답이 없어 좋다〉를 출간했다. 중증장애불자들 각자마다 능력과 소질에 맞게 키워주고 신행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방편으로 시작한 보리수아래 감성시집 네 번째 시집이다. 그리고 재택근무로 직장생활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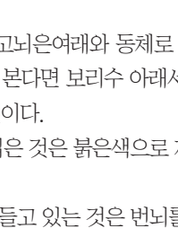
영관 씨에게 좋은 인연의 시작은 부처님의 법이었으며 108배와 사경 기도를 하면서 몸은 점점 좋아지고 사경 기도를 하면서 마음과 일상이 안정되었다. 영관 씨는 자신의 어려웠던 삶을 평범한 사람 같으면 꿈에도 못 꿀 롤러코스터를 탄 듯했다고 표현한다. 이제 불자로 예술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혼자서는 쉽게 행동에 옮기거나 이루지 못했을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말했다.

"교통사고로 다친 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힘들어지고 사람들과의 소통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통제가 안 되던 자신이 무서웠던 시절을 지나, 다시 사람들과 즐겁게 웃으며 그 자리에 함께 어울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나 부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를 잡아주셨어요. 불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행복하고 앞으로 더 수행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을 늘 하곤 합니다"

영관 씨는 수행에 장애와 비장애 구분을 하지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108배와 사경기도를 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써갈 것이라 웃는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보륜정사
• 주 지 : 보 륜 (김영호)
• 주 소 : 경남 김해시 상방동 781-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AIR BLASTING
BY WOOD POWDER
에어대패 鉋
목분(木粉)을 이용한
신기술 건식공법!

※ 목구조 건축물 복원의 신기술 "우드(목분)공법"은 원형복원과 목재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특화개발된 신공법입니다
※ 문화재, 사찰, 단청, 한옥, 목구조물, 조경시설물, 특수건축물, 금속이나 비금속, 수지, 석재 등의 소재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천년옻칠 漆
천연 옻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인증 천년옻칠

※ 해충으로 부터 보호합니다 (방충, 방의, 방부)
※ 목재의 크랙 및 변색방지 (방수성/방오성)
※ 목재의 고유한색상을 더욱아름답게 유지합니다.
※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통기성)

동화특수산업(주)
031-451-6232 / 010-3747-2111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서울 범패 1기생 : 교육과정 1년 ❖

사물다루는 법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시식
천도의식
천도재,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각종 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 개강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교육원장 : 대광스님) ※경우에 따라 요일 변경
❊ 자 격 : 승, 속 관계없음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설법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302번지 (모서별봉길 52-33))
❊ 수 업 료 : 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연 락 처 : 054-762-5888 (종무원)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